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백)부활 제 3 주일 (생명 주일)

2025년 5월 4일 (제213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화답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5,11-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음 요한 21,1-19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성가]	8시	입당	128	봉헌	210	성체	158	파견	245
	11시	입당	128	봉헌	217	성체	197,159	파견	245
부활 3주일 (생명주일)	5월 4일(주일)			5월 6일(화)	5월 7일(수)	5월 8일(목)	5월 9일(금)	5월 10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유인웅 다윗							꾸리아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정인경 가브리엘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 **오늘은 부활 제3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 삼중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매일 미사 114쪽 참조

■ **5월 성모성월**

- 5월 미사 전 기도는 매일미사 175쪽 성모성월 기도문을 바칩니다.

■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지향(매 미사 전 30분 시작)**

-5/4(일)-5/10(토): 우리 모두 안전과 보호를 성모님께 청하면서

-5/11(일)-5/17(토):가톨릭 교회의 사목자들 위하여

-5/18(일)-5/24(토):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5/25(일)-5/31(토):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5월 10일 토요일 미사전례** : 사목회

■ **한국 성지순례단 5월4(일)일-5월 16일(금)**

-한국성지순례 동안 화-금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토요일 11시 미사와 주일 8시와 교중미사**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 교중미사는 몬트레이 이종욱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몬트레이 성당에서 돈가스 한 팩(4개)을 20달러 판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5월 성경 통독**

- 콜로새 3,1-4,18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문영균 수사님)

- 일시: 5월 4일(일), 대건관 4호

■ **북가주 청년 영어미사** : 5월 10일(토) 오후 5시

■ **북가주 청년 피정**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 일시 : 6월 27일-29일

- 장소 :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신청 : www.unitasbayarea.org

- 문의 : unitastretreat@gmail.com

■ **성모님의 날 행사(배 위에서)**

- 일시 : 5월 24일(토), 오전 11:30, Luxe Cruises - 오후 4시

- 주소 : 2394 Mariner Square Drive STE B. Alameda, 94501

- 대상 : 본당 신자

- 신청 : 4월 20일(일)부터, 오전 8시 미사 후 사무실이나,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마감일 : 5월 18일(일)

- 참가비 : 70세 이상 10불, 70세 이하 30불
어린이/청소년 10불

■ **모임 및 회의**

- 샌리앤드로 : 5/11(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5/11(일)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5/18(일) 교육관 106호

- 콘트라 코스타 : 5/18(일) 교육관 107호

- 리치몬/버클리 : 5/18(일) 교육관 201호

■ **밥나눔 안내**

-오늘은 첫째주 관계로 밥나눔이 없습니다

■ **어머니 날 5월 11일**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당일 미사 참례하신 어머니께 감사지를 달아드립니다.

-어머니 날 교중미사 후 전 신자 식사가 있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르코나,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줄리올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본당 탁구대회**

- 일시 : 5월25일(일)

- 신청: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 **한국학교 종강식 : 5월 10일**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평일 성당 출입 안내**

- 월요일~금요일 평일 낮에 성당 출입은 63가 게이트로 출입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안젤로 (5/5)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2025년 제15회 생명주일 주교회의 답화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의 선포 칙서 제목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라는 말씀(로마 5,5)과 함께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칙서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표들, 특히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의를 상실”(9항)한 이들도 희망을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만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의 표징이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인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지내는 열다섯 번째 생명 주일을 맞아, 인간의 존엄과 인류 공동체의 밑바탕이 되는 생명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된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물질적 한계를 점차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지능 기술은 과학 기술의 놀라운 혁신과 질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은 다른 기술 혁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널리 퍼지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 줄 최선의 기술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찬미받으소서」, 102항)이며, 우리 삶과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은 질병 치료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뜻밖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과학 기술은 또한 윤리적 고찰과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이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치인들은 조력 자살을 미화시킨 ‘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져야 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 곳곳에서 생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찮게 만드는 “죽음의 문화”(「생명의 복음」, 12항)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는 가톨릭 교회는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최우선적 자리를 잃어버린 생명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개방성은 참다운 발전의 핵심”(「진리 안의 사랑」, 28항)이라는 진리를 모든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서는 오늘날 효율성과 생산성과 창의성을 앞세워 기술과 과학이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라고 믿는 ‘기술 지배적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며,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 또는 창의성의 논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발전과 사회적 온전성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106-114항 참조).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열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인간의 선’을 위하여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한 연설, 2024.6.14.).

과학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쓰임 방식에 따라 사회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07항 참조). 따라서 과학 기술 시대에 우리는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을 대체하는 데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특히 기술을 통한 인류 번영의 중심에 생명,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없이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 사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세워 지켜야 할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을 수호하며 희망의 표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향한 돌봄을 실천하며 인류 공동체에게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희망을 전하는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아멘.

2025년 5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5명	158명	203명

주님 부활 대축일		2차 헌금		교무금	RICE BOWL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빈첸시오	기타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4), 박찬길(1-4), 강시구(1-4), 임윤택(4), 천종욱(5), 정석준(3-5), 이재우(4-5), 유인웅(4-6), 임석호(4-5), 전문자(4), 심연자(1-6), 조덕행(4-5)					홍승천	김영희 임윤택	분당신부님	유인웅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5/4(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5/10(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유준성 데레사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김수산나	정혜경 데레사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SOO	정혜경 데레사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생 채모니카	채헬레나
	연 김정희 올리엠타	가족			
	연 백상권 요한	송수산나			
	연 부흥신 마티아	부건화 요셉			
	연 이동춘 바오로	부건화 요셉			
	연 김요한 홍모니카	정분다			
	연 정요셉 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가족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연옥 영훈	이에스터			
	연 이흥태 알비나	이에스터			
5/4 (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장민우	전데레사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생 정지문 베드로 가정	정분다			
	생 정지오 바오로 가정	정분다			
	생 엄파트리샤	심데레사			
	생 한국 성지순례단원들	심데레사			
	생 이기자 요안나	이에스터			
	생 권주선 다니엘	이에스터			
	생 권영섭 요셉	이에스터			
	생 이필형 필립	이에스터			
	생 이조형 조셉	이에스터			
	생 전데레사 가정	송아네스			
	생 안기민 신부님	송아네스			
	생 조진행 바실리오 가정	송아네스			
	생 채성일 토마스 가정	송아네스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